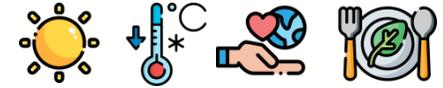


더 자스민 일보(一步)



당신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



- 글은 "밑줄 클릭"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Since 2020

다독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유시민작가님은 독서는 글쓰기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하셨지

읽기는 쓰기의 양분이 맞다. 많이 읽을수록 쓸 거리 또한 풍부해지는 것, 그런 이유에서 맞는 말이다. 허나 상당 수준의 독서량이 글(실)력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마치 프로틴(단백질) 주스 왕창 마셨으니 근육이 절로 합성될 거라는 착각과 같다. 결국 중량 운동으로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 다독은 쓰기의 밑바탕일 뿐 글은 씬으로 는다.

이에 관한 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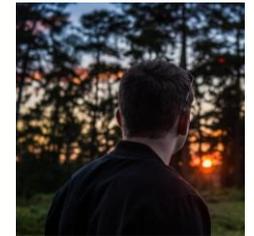
I feel I am the best writer! 'A가 내 글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 입가에 미소, 가슴엔 뭉클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일 써야 하지 않을까?' **착각이 우리를 쓰게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손르네베넷으로 기꺼이 개명할 것입니다.



오늘 4월 5일, 글방 시즌1 오픈합니다!

오는 4월 5일, 드디어 컨셉이 있는 자스민 글방 시즌1을 오픈한다. 다독만 해서는 결코 글이 늘지 않는다. 글은 씬으로 향상하고, 내가 모르던 방식으로 써봤을 때 또 다른 도약을 한다. 이번 시즌1에서는 글방 멤버들이 '글 센스'있는 글쓴이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시즌1을 비로소 제법 작가다운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달의 인물 :



박군웅 작가님

"기쁘게 생각하시고 글 열심히 써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를 알아봐 준 사람, 지지자이자 예언자. 박군웅 작가님이다.

이달의 인물로 선정한 건 실은 그래서라기 보다, 세상에 그 같은 이가 더 많아졌으면 해서였다. 봉사는 여유가 아니라 무어라도 타인과 나눌 게 있을 때 하는 것임을 그에게서 배웠다. 몸이 불편한 이를 대신해 손과 발이 되어 주기도,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기도. 빌 때 마다 존경스러운 건 그래서. 날개 숨긴 천사가 서울 관악구에도 산다.

글로 대성하길 바란다는 그의 바람을 아로새겨본다. 그가 품어준 소망을 실현할 날을 고대한다.



시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나처럼 되어간다. 개념 없다고 생각들 만큼 순수하던 에르바는 개념을 찾아 순수를 잃겠지. 그 방증 같아 너의 이가 빠지지 않기를 바랐건만 네 세포는 빠르게 분열 중이다. **아랫니 두개가 빠졌다.**



면슬리 미니특강+ 소식

- 주제 : 작가는 어떻게 씬니까?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써야합니까?)
- 날짜 : 2022.03.29(화) 밤 9시 (자세한 안내)

